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사11:14)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3:4)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원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환 편집국장: 조진근

'99 교회 주변 집중 전도

지금 곧 생명줄 던지어라!

5월 27일 10시부터



전도위원회가 교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99 교회 주변 집중 전도가 5월 27일(금주 목요일) 실시된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주변지역(1-6교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현교회를 알리고 전 교회적으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독려하며, 교회 주변 교구식구들과 지원 교구식구 간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의미있는 교제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목적적 취지를 가지고 실시되는 금번 전도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실시되는 행사의 시간별 진행계획은 아래와 같다.

복음의 역사는 분명코 교회와 의류, 설득력있는 몇 마디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함께하시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라는 말로 복음 중기의 막대한 사명을 미루어 왔다. 성령께서는 많은 말로 변명하는 자와 함께하시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역사하신다.

따라서 금번 집중 전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순종의 법을 배우도록, 그리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회적 행사가 그치지 않고 전도의 불길을 일으켜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 가운데 동참해야 하겠다.

시 간	내 용	주요사항
오전 10시	분당에 집합	각 교구별로 앉기
오전 10시-10시 30분	예배	사회: 이희영 장로, 기도: 박영식 장로, 설교: 김성관 목사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전도훈련	강사: 김재철 목사
오전 11시 30분-12시	조판성	인도: 교구 교역자, 1-6교구는 지역단위 전도팀(교구별 60여명) 8-17교구(교구별 30여명)는 1-5교구 지원, 7교구(30명)는 6교구 지원 * 총 694명
정오 12시-12시30분	점심식사	만나홀(편성원 전도팀별)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이동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전도활동	기도로 시작(기도: 부지영장), 노방전도, 업소 및 가정 축호방문
오후 3시 30분	종료	기도 후 각 지역에서 귀가

청년2부 가정사역 세미나

오늘 12시 20분

청년2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이라는 주제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한다. 청년2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성경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각 가정을 말씀대로 세우고자 하는 이 세미나에 많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는 1부 '크리스천의 결혼과 부부 행복 만들기' (송진원 목사,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장), 2부 '크리스천 가정의 바람직한 자녀교육' (전영준 목사, 청년2부 지도)과 코야노나야 등으로 진행된다.

군전도회 진중세례식

해병대 및 육군15사단 등

군전도회는 진중세례식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17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22일에는 육군 제15사단 신병 교육대 강병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6월 11일(금)에는 하사관학교에서 진중세례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례를 받는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군생활을 잘 마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일꾼으로 성숙해 가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기대한다.

다음주일은 삼위일체 주일

다음 주일(30일)은 삼위일체 주일이다. 삼위일체 주일은 10세기 경부터 지적으로 인정으로 성령강림 주일(오늘) 다음 주일에 거행된다. 이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일관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함께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게 된다.

국내외국인선교부

어제, 전도체육대회

외선부는 어제(22일) 충현기도원에서 전도체육대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소중환 만남을 가졌다. 어제 초청된 외국인들은 오늘 4부 예배와 주일 외선부 집회에 참석하였다.

'99 함께하는 청년

우리 모두 하나되어 세계로!

5월 29-30일

청년1부는 청년부의 하나됨과 부흥, 전도와 선교사역에 불길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5월 29일(토)과 30일(주일) 양일에 걸쳐 '99 함께하는 청년'을 실시한다. 주일 출석 청년 500명, 국내전도사역 참가자 200명, 해외의 단기선교사역 참가자 100명 등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청년1부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기도회 후 자체 기도모임을, 금요일에는 금요집회 참석 후 기도회를 가져왔다.

행사 첫날인 5월 29일(토)에는 만나홀과 선교관 앞뜰 등에서 일일집회와 알뜰시장장을 열어 온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도 선교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30일(주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홈집회 임대를 가질 예정이다(교육관 507호). 이를 위해 청년1부에서는 그동안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기증 물품들을 성도들로부터 모으았다.

청년1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일어나는 자연스런 결속이 영적 결속으로 승화되어 청년들의 지속적인 부흥과 계속되는 여름 사역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물품을 모읍니다

5월 28일까지 실업인전도회로

의류, 문구와 도서, 미술품, 가구, 액세서리, 수산물, 전자 제품 및 주방용품, 생필품 등

~청년1부~

학교 선생님들!

학원전도회로 오십시오

교육적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학교, 지라나는 세대대의 향방이 결정되는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라나는 세대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여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대상 : 497명의 본교회 유치·초·중·고·대 학교 교원 및 학원강사

모임 :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분당지하 110호

아기들은 탁아부에

탁아부는 아기들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아기들을 맡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해 영·유아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여, 아기들을 데리고 대배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탁아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부에서는 아기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지내도록 돕기 위해 120명의 교사들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일대일로 아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부 - 주일 오전 8시 30분-10시 (2부배배 참석 성도)
2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부배배 참석 성도)
3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4부배배 참석 성도)



김 성 남 목사

삼위일체 (요한복음 16:12-15)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와 비밀을 제자들에게 모두 말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를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내어준 바 외에 곧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어하셨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12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형편이 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나누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게 하신 그분

이 중요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13절). 여기 “그러나”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에 대하여 가려져 있었습니. 그러나 곧 그들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 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그분, 제자들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제림과 그 사이에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의 의미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지 못한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창 1:3).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명대로 조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방

에서들은 동안에는 결코 그 말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종 전에 계시 없었던 12절 말씀 곧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때

는 것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과 성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지난 2천년간 삼위일체의 교리는 교회내에서 수없이 토론되기도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오한 진리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기독교 신앙과 백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때로는 어디로든 흐르는 불침침 비취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수증기나 굳건한 땅처럼 드러나기도 하기 때

많은 서신들로 기록하였습니.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성령

이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담긴 진리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계획의 이야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4:14). 성령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신적인 비밀과 영광을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의 아들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는 생령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속삭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세미한 음성 생생한 보십시오. 신약에서 생령은 간음한 여인의 죄와 용서의 필요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조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령을 열어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며 나타냅니다. 그의 신비로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자의로 아니라 우리 주께 만군의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체가 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 곧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로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삼위는 서로에 대하여 구별되시며

각자가 신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문예 예수님은 또 다른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14절). 이 놀라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발견케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아버지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도”(45절).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의 영 곧 영광스런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신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어떻게 모두 하나님인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삼위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문예 당황스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하신 마지막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 곧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로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삼위는 서로에 대하여 구별되시며 각자가 신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것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를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서 그것들을

세계 선교

선·교·위·원·회·소·식

1박수련회/언어습득훈련

선교연구원생과 단기선교 지원자, 선교관심자들이 모여 1박수련회를 21일 저녁 9시 30분부터 베다니홀에서 실시했다.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총회 MT의 장양배 선교사를 초청하여 언어습득을 위한 실질적인 강의를 들었다. 선교지에서 접할 낯선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습으로 베다니홀을 선교지로 삼고 낯선 외국인도 초청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모습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선교사로 보내졌지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주눅들 모습으로 웃기는 해야겠다는 웃음조차도 어색하기만 할 때,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까, 아니면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적당한 문해 자재야 하는가?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한 장양배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접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선교지 망설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단기선교

'99 여름 단기선교지는 수단, 몽골, 파키스탄, 케냐 등 4개국이다. 수단은 5명을 파송하여 약 2년간 수단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 길영대 선교사는 휴가를 가진 예정이다. 몽골은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 전도사역과 선교관심자들을 위한 비전 트림을 할 예정이며 파키스탄은 선교 정탐 및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방문 전도 사역과 의료 사역을 할 예정이다. 또한 케냐는 앞으로 파송될 선교전도사의 사역 예정지역과 텔레 지역에서 전도 및 의료선교사역을 할 예정이다. 각 팀 단장 및 지도는 몽골은 조진태 장로와 지도수 목사, 케냐는 김준권 장로와 이송수 목사, 파키스탄은 손철 장로와 이홍성 목사이다. 각 팀 단장과 지도는 6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지원자들을 면접하여 단기선교단원들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령한 예배

성령께서 기름부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열망하며

박 경 한(목사, 예배위원회, 11교구 지도)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첫째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입니다. 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자주 돌아보며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격의 회복입니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러 교회들이 신성한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예배의 형식과 순서들을 임의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열린 예배로 바꾸기만 하면 마치 예배가 갱신되고 새로운 신생활이 생김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갱신은 형식의 변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먼저 철저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중직자로부터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외

선부 몽골팀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주로 3D 영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겸손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

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몽골팀의 학생들이 한국에 온 지는 대개가 1년반~3년 정도 되었다. 이들은 본국에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그러하듯 외국종교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중 취직을 위해 한국에 온 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세요.

숙박: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교회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어 매사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외·선·부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몽골팀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전하면서 전도도 합니다.

몽골팀 학생들은 주일 교회 나오기 위해 그 전날 월야근무를 한다. 교회 나오는 시간을 보충 근무하지 않으면 해고되기 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자리잡고 있기에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열심은 뜨거운 전도열로 드러나 평일에도 일부러 야근을 하고 낮에는 복음 전하는 귀한 형제 자매도 있다. 학생들의 특징은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인데, 가족간의 결속력이 강하여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전 가족이 복음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몽골팀에서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천국일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몽골선교의 역군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종희)

예배와 '아멘'

구약성경에서 '아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본래는 '아만'에서 유래했다. 뜻은 '참되다',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아멘의 의미를 통해 청송들은 그들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맹세와 축복, 저주와 기도, 그리고 송영의 메시지에 동참하게 되며, 자신이 동의하는 사실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다(참조 신 27장, 왕상 1:36, 대상 16:36, 8:80).

신약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임을 맹세하셨는 의미에서 이를 사용하셨으므로 그 말씀의 확실함을 드러내셨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확신으로 사신들을 기록하는 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노임들을 믿는다는 송영의 부분에 이를 때, 복바치는 감동으로 '아멘'을 적었다(롬 11:36, 갈 1:5, 골 3:21, 딤후 1:6).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 교회는 기도의 끝에, 그리고 성찬을 기념할 때에 '아멘'을 자주 사용하였다.

결국 아멘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나의 감격이런 반응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확고함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예배 중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말없이 내 속에서 화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나를 그 메시지에 동참시키는 아름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목사님, 사랑해요

전 성 권(고등부 2학년)



내가 처음 조문한 목사님을 만난 것은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집회 시간이고 가까이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고1 환영식을 하던 토요일이었다. 그때 목사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것 저것을 물어 보시며 호감을 나타내셨다. 그렇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나는 목사님에 대한 작은 것을 쌓았다. 그리고 처음 겨울 수련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격하게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으로 느껴졌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조금 더 멀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감정들은 없어지고 것이 들기 시작한 것은 가을이 되는 때쯤이었다. 목사님에 대한 호기심도 갖게 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1학년을 졸업하고 2학년이 되어서 나는 편집 부장을 맡게 되었고 임직원 친구들 30여명과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몇몇 선배님들과 함께 임직원 수련회를 갔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우리의 이름을 의우리로 애칭했고 또 우리와 친해지시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셨다. 그 뒤 목사님은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

그 뒤로 나는 고등부의 모든 학생에게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시고 고등부와 좀더 친해지려고 하는 목사님의 노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 물론 목사님께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분도 우리 고등부에 있을지 모른다. 내가 목사님이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나면 조문한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말한다.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주기 사랑받기

이 성 근(고등부 학생과장)

지난 7년 동안 중등부에서 봉사하다 올해 처음으로 고등부로 옮겨왔다. 고등부 3학년이라고 해도 내가 중등부에 보았던 학생들이라 기대감도 컸다. 그런 기대감과 기쁨 한편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들이 아직도 중등1부대의 모습들로 남아있는데 학생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사랑하라'였고 내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알아 주기를 바랬다. 물론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각자 성실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해서 이렇듯 고등부에서 의지한 모습으로 내 반겨 주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속에서 그들도 이제 나에게 사랑을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난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 그들은 사랑을 주기 원했지만 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어린애들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쉼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남들이 베푸는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

고등부에 온 지 세 달만에 학생과장이 되었다. 처음 학생회의 임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향해 배려 준 축복송을 들으며 나는 그들에게 단지 주어진 해야 할 교사가 아닌 그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한 지체가 되어야 했다. 어린아이의 보라색 나뭇 가지와 생선 두 마리, 이것은 아마도 어린 아이가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줄 수 있었던 최대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분이셨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랑을 주는 것이 반 받는 것이 반이어서 이것이 합쳐져야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얼마 전 스승의 주일에 사용할 꽃을 살 것인가 만들 것인가 열띤 논의를 하던 학생들의 모습 속에 조금이라도 정성이 들어간 고등부 학생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스승의 주일에 웃음만 얼굴로 달아 주는 그들이 만든 빨간 카네이션을 보며 그들이 나에게 주려 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초보 학생과장이지만 그들이 나에게 보낸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것이며, 또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닌 서로 주고 받을 때 더욱 값진 것이리라.



옛 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

김 성 주(대학부 4학년)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 1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만난 나의 첫 팀장님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다. 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3월이 고등부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대학부 팀장들에게 인도되던 날. 만나올 테이블 앞에 쪼그리고 앉아 대학부를 상상하며 온근히 겸(?) 먹고 있을 즈음, 팀장이라는 형이 왔다. 김주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그때의 형은 위 아래 청자켓 청바지를 입고, 한쪽 어깨엔 리복 가방을 맨 차림에, 꽤 마른 듯한 모습이었다. '팀장'이라고 하길래 고등부 선생님을 연상하고 있던 나는 좀 놀라움을 느꼈었다.

형이 오자마자 우리 1학년들에게 한 얘기는 곧 한 2달 정도 해외로 갔다는 거였다. 난 솔직히 그 말도 없는 거대도 안했다. 당장 다음주 한번만 보면 두 달 동안 볼텐데 1학년들은 안중에도 없으리라고. 다른 사람들과는 이례적으로 말하고 자기 할 일이나 하겠지 싶었다. 그러나 그런 단정 지 생각일 뿐이었다. 형 생각은 없었다. 형은 당장 1학년들 이름부터 다 외웠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GBS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 모로 신경 써 주었고, 다음주에 만났을 때도 형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고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형은 나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역시 난 대학부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형이 이를 후호주로 떠나자마자, 난 당장 그 주부터 집회만 드리고 GBS는 거의 안 들어갔다. 부담이 됐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분위기,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GBS를 오는 날은 마음 두 하면서, 형이 호주에 있는 동안 난 집에 있었다.

2개월이 지난 후, 역시 형은 호주에서 돌아와서 처음 맞는 주일 팀 모임 때 1학년부터 찾았다. 형이 내 앞에 왔을 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난 형한테 다 말했다. 그 동안 많이 배웠다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 잘못이 드러나는 동시에 대학부를 향한 내 속의 불신과 부담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아마도 내가 모르는 중에 형이 본 눈물의 씨앗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은 그러고도 나를 사랑이니까. 그 이후로 난 대학부에서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 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형은 공학도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결코 계산적인 것이 아니며, 헌신적인 팀장이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모습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도로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학부가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여기는 선교관 ...

모두들 맛난 국수를 먹으러 내려가는 중이었습다. 한 꼬마가 물러 브레이드를 신은 채 용감히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신 한 권사님께서 "애여! 다친다. 꼭 잡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당선도 힘겨워서 매우 조심스레 내려가시면서.

그분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어른들께서는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무사히 잘 내려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다친다!"라고 연신 말문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별 생각없이 내려가던 꼬마도 언젠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충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돌봄과 기도로 저희는 이렇게 잘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림 / 김명호(대학부 1학년)



나의 주님의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랍니다

황 정 연(내학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렘 1:5)

매년 세배를 하면서, 생일이 지나가는 것으로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해 가는 것이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마냥 좋았던 초등학교 시절, 목소리가 굵어지고 키도 부쩍 크고 조금씩 고인이 됐었던 중학교 시절, 이제는 어른이야 라며 나의 생각을 고집했던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기 에 부족했던 지난 1년,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지켜보고 보호하셨습니다. 성년의 날을 보내며 나를 20년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내 삶에 늘 동반하길 매일 기도드립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았던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인격을 얻고자 성경을 읽으며 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다음 주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결함과 순결하심을 나를 과격하게 하였습니 다. 구원이 나의 삶, 나의 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불리고 성경에 반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절망하며 자꾸만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은혜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심을 깨닫고 나의 의로 나의 의로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닿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괴로웠던 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굳센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나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치루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을 기도합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시간에만 만나는 제한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호호하는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함께하여 주신 것같이 나의 남은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인이 되는 즈음에



어른이 된 정연에게

주님의 음성들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지 영 순(집사, 3교구)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며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부어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일인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는 아이를 졸업하고 어른으로 입학하는 첫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아들 정연이를 바라보면서 어느덧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훌쩍 커버린 모습에 가슴 뭉툰하며 성년의 날까지 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모신 독자인 아버지 아래서 장남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온 식구들에게 안겨 준 기쁨은 그간의 고공과 수고로움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은 일이었다며 내 인생에 있어서도 큰 희곡을 맺는 날에 대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양육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책무를 맡았다고 지난 20년을 순탄하게 커 주고 부모의 기대치를 헤아려 고고고비를 씩씩하게 살아온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이제는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같이 부모의 보호막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구체적인 자유로움과 충분한 도전과 선택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며 결단하는 아들과 고공이 공존할때, 초등학교 입학했던 날처럼 성인으로 첫 발을 딛는 날에 격경과 안쓰러움이 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큰 위로를 얻는다. 마음을 크게 키우고 그 큰 마음을 신적으로 채우며 한 공간은 비워주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사투는 집안 일로 걱정하는 나에게 다가가 "무엇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암송하며 평강이 웃는 너의 모습을 어느새 커서 이렇게 격결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구나 생각하며 정말 대단함을 느꼈다. 부모가 되면서 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알지만 배우자를 만나 내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 엄마한 교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남겨 주길 소망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한다.

가정의 달 시리즈 4

부부의 아름다움



그림/황인원

미국의 한 유명한 잡지의 사진 기자가 식사를 하려고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들어와서 서로를 부축해가며 의자에 앉았고 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비스킷 한 접시와 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노인이 먼저 비스킷을 들며 천천히 씹어 먹었고 그의 아내도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다 보며 마시더니 잠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비스킷 한 조각을 먹고 나더니 일 입의 틀니를 뺐아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성스럽게 틀니를 깨끗이 닦아 아내에게 건네 주었고 아내는 틀니를 차처럼 가볍게 입 안에 끼워넣고 비스킷을 들고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비스킷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사진 기자는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잡지에 실었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볼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말이 간혹 들리웁니다. 바로 '황혼의 이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을 결혼하고 돌만 남게 되니 "하루를 살아가는 사느 것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노인들이 이혼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는데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설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시킨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엢 5:22)고 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며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엢 5:25)고 하십니다. 남편이 가지는 아내에 대한 의무는 한 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여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부가 되 어지기 위해 서로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갑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 송선홍 집사를 추억하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 방글라데시! 만나서 반가워요, 나 방글라데시 친구를 많아요. 마들, 불라시, 마수드 ... 이런 이름 모두 방글라데시인 이름 맞죠? 나는 미스트 송이예요, 이름이 뭐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고가면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반갑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송선홍 집사(11교구). 이분은 11교구 소속이며, 선교위원회의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에서 봉사하며 방글라데시 형제들을 복음을 전하였다. 송 집사님은 매우 목요인 저버리던 경기도 수지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형제들을 방문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심지어 그들이 복음에 노출되어도 비효율적인 반응을 보여도 꾸준히 찾아왔다. 토요일 오후에는 선교연구원에서 강의를 듣고선 교영어를 공부했다. 50세의 나이이지만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송 집사님.

그가 5월 4일 오전 직원들과 함께 직장에배를 본 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한송가지를 부르면 송 집사님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마침 그 병원 간호사가 같은 외선부 교사 김정희 집사님이었다. 김 집사님이 송 집사님을 알아보고 응급 조치를

취한 뒤 교회에 연락을 했다. 선교위원회에서 긴급 연락을 취해 많은 교우들이 병문안을 했는데, 송 집사님 형제들은 많은 성도들이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 그러나 뇌 속에서도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송 집사님은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연장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쓰러진 지 일주일여 못되어 소천하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모르면 지옥갑니다"를 항상 외치던 진도자, 삼례의 중심이 복음 전파이며, 그것을 위해 사임도 좋고, 교회 봉사도 하던 사람,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교회를 남겨 준 송 집사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 헌신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한다. (외선부)

생전에 외선부 형제와 자를 같이 한 송선홍 집사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영아부

반별 친교 시간 가져

지난 주일(16일)에는 반별 친교시간을 가졌다. 먼저 믿음과 사랑과 화해하였다. 몇몇 부모님들의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으나 아이들의 참여로 더욱 훈훈하였다. 또한 스승의 주일인 이날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냈다. 절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사들은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혜복경 통신원)

유아부

울은 길로 인도하는 교사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길을 찾습니다. 그저 사는 데만 급급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도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지난 주는 교회의 교사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주였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 천사들에게 제대로 예수님 전달하기가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많은 기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도들 부탁드립니다. (임미순 통신원)

중등1부

교사기도회

지난 주 중헌기교회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기도원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 지난 가을수련회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하여 방향성을 잡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련회와 중등1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기도회를 시정으로 여름수련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뤄지길 기도드립니다. (김범진 통신원)

사랑부

감사해요

5월은 생사가 참 많다. 어린이날, 아버지날, 그리고 스승의 날. 감사받은 것도 많지만 감사드리야 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사람들에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포옹, 그리고 뽀뽀를 선사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힘있게 안아 주는 모습 속에서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영예자 통신원)

1교구

베드로전도회 월례회

직장생활과 생업의 분주함을 마치고 베드로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한 분, 두 분 발걸이 모임을 보면서 감사를 드린다.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로 내조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웃을 땀 흘려달라 부는데 이 함께 모였다. 사회적 종교개혁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아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믿수기 21장 4-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정현 경로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 속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강조하셨고, 모인 회원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게끔 바라보면서 남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에 도전하셨다. 1교구에 속한 40대 성도들은 누구나 부부가 동참하여 서로의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김용주 회장님은 당부하신다. (임용택 통신원)

4교구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가정의 달을 맞아 4교구에서는 금요집회시에 연합 찬양을 하였다. 금요일마다 연료하신 권사님, 아기를 안고 온 젊은 어머니,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서로 인사를 하며 동도 두드려 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주일에는 젊은 교구 모임 장소에서 파티집회를 하고요 소음 속에서 자기의 파트를 부르며 잊지 않으려고 머리를 감고도 목청 높여 연습을 하였다. 또다시 약속된 집회날 '예수님 살기는 우리 집...'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로부터 급하게 직장에서 온 남성도들과 머리가 하얀 권사님, 부족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를 불렀고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주었다. (백종환 통신원)

12교구

날로 부흥하는 일산신도시구역

1993년도에 한두 명이 모여 시작한 일산신도시구역이 95년도에는 20명의 인원으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인원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쉬운 속에 4개 구역으로 나뉘었고, 현재는 10개 구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헤어지는 아쉬움에 1년에 한번씩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며 경조회를 만들어 축하와 위로의 교제를 나누었다. 먼 거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을 구역예배와 연합구역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끈으로 결속함으로써 오히려 가까운 지역보다 더 든든한 구역이 되었다. 금년 5회째 정발산 정자에서 모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어른 50명, 아이 8명이 모였다. 교역자 두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구역마다 송배를 받으며 각종 유익을 준비해 와서 나누고 찬양대회를 열어 하나님께 이로운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교구에서는 지난 주일 다른 지역과 두 지역이 짝을 이뤄 가족 소개 및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규숙 통신원)

15교구

영성훈련의 열기를 총력전으로

지난 주중에 있었던 교구 영성훈련에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 교구에서는 '10월 15교구 총력전도'를 위한 교도보를 마련하였다. 각 구역별 '대신자 운동'으로 최소한 1구역 1인인 35구역 35명의 대신자들이 15교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임대되어 10월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좋은 전파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구교에 그치고 마는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우선 가족 복음

유년부

신령한 예배 위해 지각하지 맙시다

다음주일엔 어린이 초청잔치 갖기로



예배를 신령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 모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배를 10시 30분부터 드리는 유년부(부성 일기제 강로, 지도 김영진 목사)에서는 매주 지각하는 학생들을 줄여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가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년부의 올해 목표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중 예배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을 일찍 보내달라는 통신문을 주 차례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실행하고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유년부의 모든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아이들을 항상 웃음으로 대하는 선생님 두 분을 선정하여 안내 교사로 세우는 것이다. 안내교사들은 예배 시간에 웃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정말 큰 다짐을 수 없겠어요" 하며 일찍 오도록 약속을 하면서 아이들

화 전락을 먼저 세우고 대신자를 적어내고 기도하기로 하였다. 관계 전도를 위한 전도전략이 인쇄되어 교구 식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아 5:10-16)를 전파하기로 결심하며 합심 기도하였다. (한정경 통신원)

충현복지관

정신지체인 사생대의 대상 수상

지난 4월 29일 경마장 경마공장에서 열린 제13회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서 복지관 직업훈련생인 유국진 씨(23세, 아래 사진 왼쪽에서 첫번째)가 일반부 대상상을 차지하고 그 외 은상 2명, 동상 4명, 입선 4명 등 총 11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사생대회에는 약 3천여명의 정신지체인들이 참석하여 사생과 그리기에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대상 수상자인 유국진 씨는 해마다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여러 번 상을 받아왔었는데 대상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 기쁨이 더욱 크다. 사생대회 심사위원인 김정 교수(사양화가는 이번 대상 작품이 색깔의 대비와 절제와 돋보임 작품이라고 심사 총평을 정리했다. 앞으로 정신지체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일반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정경 통신원)



자신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모두가 출석을 하고 지각을 한 아이가 없는 반에는 상을 줄 계획이다.

한편 다음 주일인 5월 30일에는 어린이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사들은 4주 이상 나오지 않았던 장기간 결석자나 교회 근처 유년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을 위해 아이들이 친한 반 친구들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서로 연락하여 나오도록 하고 교사들은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유년부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었으나 아이들을 출석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이에 동참하였으면 하고 있다.

유년부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의 예배는 대략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반공부 전에 시청각 교육으로 10-15분 그 말씀의 내용을 VTR나 인형극, OHM를 통하여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또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이 느낀 것들을 나누면서 반반공부를 한다.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 매주일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유년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변주영 기자)



교회소식

장안

1. 구제헌금 안내
 - 일시: 30일(다음주일)
1-V부예배시
 -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실용쿼트 대상자 모집
 - 개강: 6월 9일(수)
 - 문의: 복지관(565-7564)

모임

1. 장로 회오새벽기도회
- 일시: 25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필요새벽기도회
- 일시: 24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오후 1500
- 장소: 감리홀
4. 제2교육위원회 월례회
- 일시: 25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5. 기원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후 찬양예배 후
- 장소: 선교관 301호
6. 건축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후 1500

- | | |
|--|--|
| 1. 점심: 선교관 50호 | - 일시: 27일(목) 15:00 |
| 7. 남산(선교부현황)회 회장단 교회
주변 정문 지도를 위한 기도회 | - 일시: 27일(목) 15:00
- 장소: 선교관 50호 |
| 8. 가락양양 출동 모임 | - 일시: 27일(목) 15:00
- 장소: 찬양위원회실 |
| 9. 성삼일전도회 목요기도회 | - 일시: 27일(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성삼일전도회 사무실 |
| 10. 권사 제4기회 월례회 | - 일시: 26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사랑부실 |
| 11. 새가족(신) 15주 | - 일시: 27일(목) 15:00
- 장소: 찬양부실 205호 |
| 12. 배도역 2기회 월례회 | - 일시: 27일(목) 19:30
- 장소: 신촌교회 예배실 |
| 13. 배도역 3기회 월례회 | - 일시: 27일(목) 19:30
- 장소: 신촌교회 예배실 |
| 14. 배도역 4기회 월례회 | - 일시: 27일(목) 19:30
- 장소: 신촌교회 예배실 |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새가족부 교사실
16.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만나홀
17. 마리아 6지회 월례회
- 일시: 25일(화)
 - 장소: 충현기도원

결론

1. 한영균 군(한경진 집사, 강학초 집사)의 아들, 1교구와 조흥초 양조초 성도, 2교구 집사의 딸, 29일(토) 1300, 강림교회
2. 최형열 군(최성두 씨, 파죽고 집사)의 아들, 8교구와 이신회 양말목 초 집사의 딸, 19교구 / 29일(토) 1300, 강림교회
3. 정경식 군(최성수 집사, 백영재 집사의 아들, 1교구)와 인영회 양말목 초, 이분초 씨의 딸, 19교구 / 29일(토) 1300, 사순성회관 4층 두루방식 506-2222
4. 이준환 군(이영호 안수집사, 박익희 집사의 아들, 5교구)과 박익희 양말목초 씨, 영명초 씨의 딸 / 29일(토) 1400 이분초 LG트윈타워 동관 3층 이분방식(3773-121)

출현 정보의 창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 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

② 교회 주변 집중 전도의 날(27일)
행사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미지
는 영혼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은총을 허
락하소서.

③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회복
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④ 금년 여름에 실시될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이 잘 준비되어 복

5) 우리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㉔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시어.

⑦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

⑧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⑨ 충현복지관 증축 공사가 잘 진행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로 잘 사용되게 하소서.

새 · 가 · 족 · 을 · 화 · 영 · 한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연도지
724	조정남	2	예스21	안정진(12)	733	정성국	19	청년1부		742	박성희	19	청년1부	박인성(19)
725	조순래	4	예스21	조희순(14)	734	허은석	19	청년1부		743	조용호	19	청년1부	
726	권관배	4	소망가	김명지(6)	735	배유진	19	대학부		744	윤세원	19	청년1부	홍순희(10)
727	김수일	6	청년2부		736	손성분	19	청년1부	이해주(4)	745	김화철	19	청년1부	
728	김보경	8	청년2부	안준호(6)	737	윤자민	19	대학부	정미현(9)	746	최경택	19	청년1부	
729	송은경	8	청년2부	안준호(6)	738	임진미	19	청년1부		747	임옥영	19	청년1부	김만국(7)
730	최원근	14	예스21		739	최종현	19	청년1부		748	김성구	19	청년2부	안정선(12)
731	김세종	19	교동부		740	이재진	19	청년1부		749	김 향	19	청년2부	안정선(12)
732	이원보	19	대학부	임부부(19)	741	이은진	19	청년1부	양자영(17)	750	구희진	19	청년2부	

※ 출석교회의 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은 경찰관을 위한 전도집회

송두섭(집사, 경찰전도회)

지난 5월 11일 하나님
의 명령에 회장
이갑재 장로님
이하 경찰전도
회원 91명은 충
주 중앙경찰학
교를 찾았다. 충
주 중앙경찰학
교는 총면적 30
만 1907평으로 1
여명의 신입경
육의 사설이다.

이강재 장로님의 기도와 김인식 목사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중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을 깨닫게 했다. 이날 참석자 중 225명의 결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대수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살리는
생명의 종교를 전하며 진리 안에서 젊
은이들이 거듭나야겠다. 99년을 보내
기 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주



중
가
선
서
수
민
만
복
공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 민중의 참 지평
이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어두
운 사회 곳곳을 신앙의 햇빛로 밝히
더불어 사는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충주경찰학교 여러분의
건투를 두 손 모아 빌다

밤 11시 30분이 훨씬 넘어 교회에도
착하니 각 회원들의 귀가 걱정이다.
중 지혜에 지혜를 더하사 마음은 사랑
으로 이어져 밤 늦도록 원근 각처 방향
을 따라 가가호호 회원 한 분 한 분을
무사히 가정에 모셔드리고 나니 새벽
시가 되었다. 주 안에서 사랑의 바퀴는
행사 때마다 쉬지 않고 밤의 향기를 삼
고 달리고 달릴 것이다.

섬 · 기 · 는 · 분 · 들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 |
|--------|-----|-----|-----|-----|-----|
| ■ 부목사 | 이홍성 | 김희수 | 이광태 | 박경한 | 김동석 |
| ■ 집사 | 김필수 | 전영훈 | 김재철 | 이승수 | 정갑신 |
| ■ 장로 | 정현민 | 조문환 | 조칠수 | 김동하 | 차병준 |
| ■ 권역 | 김태태 | 김인식 | 권상현 | 서광진 | 이승학 |
| ■ 집회 | 김해성 | 이준경 | | | |
| ■ 협동사 | | 윤영탁 | 박형웅 | 노봉민 | |
| ■ 선교회 | | 신교사 | 이준교 | 안석렬 | 김영태 |
| ■ 기도사 | | 김도사 | 박익진 | 염현일 | |
| ■ 전직도사 | | | | | |
| ■ 장로회 | 현정남 | 강영자 | 임태주 | 김경자 | |
| ■ 배유인 | 최지혜 | 손미희 | 송창자 | 신동자 | |
| ■ 유인숙 | 오영숙 | 오인숙 | 김영숙 | 한영련 | |
| ■ 박희화 | 김영숙 | 김복순 | 김연식 | | |
| ■ 고전도사 | 박익진 | | | | |

예 배 아 나

구분	시간		참소
주말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주일, 주일학교(동행식별))	본당
	IV	오후 1:30	본당
	V	오후 3:30 (청소년이 드리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목회관 7층(2층)
현일예배	오전 5:00		본당
수도예배	[오전 11:00 ~ 오후 7:30]		본당
오교집회	오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4:00		본당